



아시아의 정제시설 현황과 전망

최 근 석유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아시아지역의 야심적인 정제시설증설계획이 주춤거리고 있다.

대서양부의 정제시설들은 中國의 잠정적 석유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현물제품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앞으로 수년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제시설 프로젝트들이 속속 완공될 경우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것일지 모른다. 올해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석유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정제시설의 증가가 석유소비 증가를 앞지를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의 정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잉여 제품을 소화하는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정제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의하면 中東지역의 수출용 정제시설은 별도로 '98년말까지 아시아지역의

정제능력은 370만b/d 증대가 전망된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예상 수요증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예상 정제능력 증대에는 건설이 구체화되어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된 것을 포함하며, 건설 "가능성"이 있는 148만b/d는 제외된 것이다.

'94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예상 수요증가는 83만b/d로서 예상 정제능력 증대 130만b/d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시설증대를 위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디보틀네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정제시설로서 中國의 대련, 인도네시아의 서자바, 말레이시아의 멜라카 정유공장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과 필리핀에서 대규모 증설이 예상된다.

오는 '98년까지의 전망을 보면 中國의 내수소비와 정제시설 합작 프로젝트와 관련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

재해 있다. 또한 한국의 야심적인 증설계획은 수요증가세 둔화와 과중한 부채부담으로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日本의 폐기 정제시설 재취역 감소도 예상되는 변수이다.

中國은 Sinopec이 *debottlenecking*을 통하여 30만 b/d을 증설하려는 유력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밖에 다른 회사가 20만b/d의 증설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로얄 더치 셸의 16만b/d 규모의 *pearl rivers*정제 시설 건설은 '97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추가 건설 가능성이 있는 정제시설중 Elf의 12만~16만b/d 규모의 上海 프로젝트만이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5개의 신규 증설 프로젝트 가운데 적어

도 하나는 '98년안에 성사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시설증대는 총 확장계획 76만b/d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만은 *Formosa Plastic*의 25만2천b/d 정제시설이 '98년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Karnal*과 *Onissa*정제시설이 각각 증설 또는 가동에 들어갈 것이나, *Reliance*의 *Guajarat*플랜트는 완전한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의 정제능력 증대는 세계 제품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휘발유 수출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휘발유 수요는 경유와 제트 연료유의 수요 증가에 못 미치며, 이들 제품은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공급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PIW, '94. 3)

아/태평양의 정제능력과 석유수요(1,000b/d)

	현정제능력	개연성 (probable) 있는 건설계획		가능성 (possible) 있는 추가 정제능력
	1993	1994	1995~98	1995~98
호 주	677	12	15	-
방글라데시	31	-	-	-
브루나이	10	-	-	-
버 마	32	-	-	-
中 國	3,300	250	500	310
인 度	1,080	40	320	300
인도네시아	860	145	-	-
日 本	4,880	220	200	100
말레이시아	255	100	120	50
뉴질랜드	84	-	-	-
파키스탄	126	12	-	120
필 리 핀	320	38	20	30
싱가포르	1,080	150	40	120
한 국	1,675	160	560	200
스리랑카	50	5	-	-
대 만	578	-	357	-
泰 國	365	135	315	110
베 트 남	1	-	-	140
합	15,404	1,267	2,447	1,480
지역수요	15,641	835	3,800	-

<주> 북한 제외.